



모유(母乳)는 이유(離乳)하고 자조금(自助金)으로 자립(自立)해야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지난달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 양돈산업은 돼지콜레라 박멸사업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양돈업계의 모든 에너지를 돼지콜레라 박멸에 모았는데, 다이옥신 파문이 발생하였다.

이제 돼지고기의 가격이나 맛을 따지기 전에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공부하게 되었다.

특히 양돈 선진국이라고 하는 EU의 돼지고기가 반드시 안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국산 돼지고기가 더 안전하고 신선하다는 것을 경비를 적게 들이고 홍보한 셈이 되었다.

이번 다이옥신 파동으로 우리 나라는 식품에 대한 다이옥신 안전기준도 없고 다이옥신이 함유되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시설도, 장비도, 인력도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도 도평센터 한군데에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 나라의 체면을 겨우 살렸다.

하루 속히 검역원에 분석시설을 갖추고 국내의 축산물의 신속·정확한 검사로 소비자들에게 국산 축산물의 안전성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일에는 돈이 필요하고 정부가 부담할 것과 부담해야 될 일이 있다. 우리는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한 자금 염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정 전염병이므로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부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니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선진 돼지콜레라 박멸국들의 성공사례를 받아들이자는 안이 있었다.

그러나 100두 이하의 소규모 농장, 정착촌 등에 대한 방역을 정부가 담당하고, 이보다 큰 규모 농장은 백신접종을 안할 경우 도축을 제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다. 돼지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비대본)는 이들 일정규모 이상의 농장에 대한 조치가 잘못 되면 돼지콜레라 박멸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혈청검사 등 조사, 홍보, 지도, 협력사업을 통해 2천년 8월 말 이후에는 백신접종을 안해도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비대본의 사업이 당초계획에 차질을 가져

커피 한잔 값에 불과한 돼지고기도 이제는 값싼 것만을 홍보하기 보다는 안전성 홍보를 꾸준히 하지 않으면 산업으로서의 존재가 어렵게 된다. 개방화는 결국 우리 나라 양돈산업이 질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도록 강요받게 됨을 말한다.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축산농가 모두 힘을 합쳐 축산업 자조금법을 만들어야 한다.

온 것도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이 자조금 제도가 확립되어 있었다면, 이미 우리는 지금쯤 백신 접종 중단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야외 바이러스 검사 등 여유있게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돼지콜레라 박멸에 실패하였을 경우 약 5조원의 손실이 있다고 하면서도 100억원의 박멸기금 마련이 어려운 것은 5조원은 보이지 않고 100억원만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축산업 자조금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모든 축산농가들이 동서서 서명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번 다이옥신 파동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 국산 돼지고기는 안전하다는 것이 소비자 보호원의 신속한 분석 발표로 판명되어 다행이지만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가 계속되어야 한다.

이번에도 체험하였지만 상표 선전은 상품 선전 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자조금으로 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홍보가 계속 되어져야 한다.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 때 이번 기회에 쇠뿔도 단김에 뺏다는 식으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일이 조잡하게 되고 잘못하면 소도 죽게 된다.

자조금 제도를 만들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 소나기 식이 아니고, 가랑비에 기분 좋게 옷 젖는 방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공권력에 의지하고, 정부의 지원에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정부에 의지하기 보다는 이제 모유(母乳)는 이유(離乳)하고 스스로 이유식을 먹고 식사를 해서 자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비대본 사업이나 앞으로 계속 문제화 될 돼지고기를 비롯한 축산물의 안전성 또한 경쟁식품과의 대체성 등 자조금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너무 많다. 오늘 신문광고에 미국육류수출협회에서 수입쇠고기 냉장육을 근당 4천원 대로 판매한다는 대형 광고도 자조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커피 한잔 값에 불과한 돼지고기도 이제는 값싼 것만을 홍보하기 보다는 안전성 홍보를 꾸준히 하지 않으면 산업으로서의 존재가 어렵게 된다. 개방화는 결국 우리 나라 양돈산업이 질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도록 강요받게 됨을 말한다.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축산농가 모두 힘을 합쳐 축산업 자조금법을 만들어야 한다. **양돈**